

## 우리나라 대학과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분야 관련학과의 특성변화

이진헌<sup>1\*</sup> , 문경환<sup>2</sup> , 안령미<sup>3</sup> 

<sup>1</sup>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sup>2</sup>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융합보건환경과학부, <sup>3</sup>동덕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 Character Transformation of Departments in the Fields of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at Universities in Korea

Jin Heon Lee<sup>1\*</sup>, Kyong Whan Moon<sup>2</sup>, and Ryoung Me Ahn<sup>3</sup>

<sup>1</sup>Depart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sup>2</sup>Division of Conjugated Health and Environment Sciences of Technology, College of Health Science, Korea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Health Sciences, Dongduk Women's University

#### ABSTRACT

**Background:** Education on environmental health in Korea was begun with establish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959. The sanitary movement started in Europe and the Americas in the 19th century and was introduced to Korea in the 1960s under the name of sanitary engineering. The field enlarged along with title changes.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vious and present status of the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fields in Korea.

**Methods:** This study utilized documents published by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KEDI) from 2015 to 2020, the homepages of universities with their history and regulations, and other related published documents.

**Results:** Public health was fundamentally enlarged as an expert field in Korea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59. There are 102 departments relevant to the environmental field at two-year colleges, 220 at universities, and 175 at graduate schools. There are 89 departments relevant to the public health field at colleges, 96 at universities, and 160 at graduate schools as of 2020. The term “environment” in the title of a department is used as much as 80~93.1%, but “public health” in titles is used in 47.7~61.5%. Fifty percent of graduate schools of public health award specialty degrees other than master of public health.

**Conclusions:** Although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fields have been expanded in universities in Korea, various specialty fields were included in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oping plan with the trend.

**Key words:** Environmental field, public health field, specialty field, departments

**Received** December 6, 2021

**Revised** December 29, 2021

**Accepted** January 26, 2022

#### Highlights:

- Education on environmental health in Korea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SPH at SNU in 1959.
- The number of departments within the environmental field is 102 at colleges, 220 at universities, and 175 at graduate schools.
- The number of departments within the public health field is 89 at colleges, 96 at universities, and 160 at graduate schools as of 2020.
- Half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s allow master's degrees in either public health or a specialty field in Korea.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56 Gonju-Daehak-ro, Gongju 32588, Republic of Korea

Tel: +82-41-850-8814

Fax: +82-41-850-8810

E-mail: ejhl@kongju.ac.kr

## I. 서론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많은 질병에 희생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었다. 그리고 위생적인 생활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스의 Hippocrates는 질병 발생과 환경 사이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조사를 바탕으로 역학적 사고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고대 로마도 도시를 건설할 때 환경위생적인 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근세(AD 1300-1800년)에 이르러 유럽에서 시작된 문예부흥은 공중보건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즉 과학적 방법으로 질병의 원인과 본태를 규명하기 시작하였으며, 질병의 원인이 다양한 환경오염물질과도 관련 있음을 알게 되었고, 환경위생은 공중보건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sup>1)</sup>

### 1. 환경위생시대

19세기 중반에 유럽사회에서 위생의 중요성을 아주 절실히 깨달았던 시대였다.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사회에 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고,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했던 영국이 유럽의 위생개혁운동을 주도하였다.<sup>2)</sup> 특히 영국의 법률가였던 채드윅크(Chadwick, 1800~1890)는 영국사회가 당면한 위생문제를 결하기 위하여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을 제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그의 저서 “영국 노동인구의 위생상태(Sanitary Condition of the Laboring Population of Great Britain, 1842)”을 통하여 위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크게 만들게 되었다.<sup>3)</sup> 채드윅크는 이 저서에서 위생문제의 해결방법으로 공학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위생공학적인 접근방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sup>3)</sup>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도 초창기에 공중보건을 증진시키는데 위생공학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하게 되었고,<sup>3)</sup>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환경위생문제 해결에 초창기에 위생공학을 적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대에는 공중보건과 환경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을 환경위생개혁가(Sanitarian)라고 통칭하였는데, 이들의 위생개혁운동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어서, 주로 사회개혁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sup>2,3)</sup> 19세기 중반까지 이들은 도시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의학의 정치적 역할을 이해하였으며, 건강을 시민권의 차원에서 바라보며 빈곤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인식하려고 노력하였다.<sup>3-5)</sup>

1880년대와 1890년대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세균학의 확립은 위생개혁의 접근방법에 큰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다. 즉 기존 위생개혁은 위생에 대한 사회문제를 사유재산이나 제도적인 특권을 어느정도 제한하여 사회복지를 확보하는 형태의 접근방법이었는데, 세균설의 확립으로 위생문제를 과학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접근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sup>3)</sup> 이것에 대해

여 Lee (1996)<sup>3)</sup>는 19세기 위생개혁(舊 공중보건)과 20세기 공중보건개혁(新 공중보건)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Winslow<sup>2)</sup>는 “공중보건운동의 근대적 발전(The Evolution and Signification of Modern Public Health Campaign)”에서 미국 근대 공중보건의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1840년에서 1890년 사이로 ‘경험적 환경위생’ 시기, 둘째는 1890년에서 1910년 사이로 세균학이 최초로 공중보건에 응용되는 시기, 셋째는 1910년 이후로 개인위생과 건강진단을 강조하는 신 공중보건 시기 등이었다.<sup>2)</sup>

환경위생학이 전문분야로 독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사람은 새지윅(Sadgwick, WT)이다. 그는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생물학과 위생공학(Sanitary engineering)을 접목하여 환경위생학을 독립된 새로운 전문분야로 만들었고,<sup>5)</sup> 그는 의학이 질병에 관한 학문이라면 환경위생학은 건강에 관한 학문이라고 주장하였다.<sup>3,6)</sup> 그리고 1909년에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과 위생학 교실의 주임교수가 된 밀턴 로즈노와 1911년에 하버드대학교 환경공학과에 부임한 위플(Gorge C. Wipple) 등과 함께 1918년에 하버드-MIT대학원을 창설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는데, 이 대학원은 의학의 정신과 공학의 정신 등 2가지 정신을 복합체로 가지고 있었다.<sup>2,3)</sup> 이러한 새지윅의 공중보건의 교육에 대한 철학적인 방향과 지도력 덕분에 하버드-MIT대학원은 1910년대에 미국 공중보건 분야의 유능한 지도자를 다수 배출하게 되었고,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오늘날과 같이 환경운동가(Environmentalist)와 공중보건전문가(Public health professionals)로 나뉘게 되었다.<sup>6,7)</sup>

### 2. 위생공학과 환경공학

미국, 서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환경공학이 시작된 시기는 대체로 1960년대 중반이다. 위생공학과 교과과정을 갖고 있던 대학에서 이 시기에 그것을 환경공학으로 변경시켰고, 그렇지 못한 대학에서는 새로이 환경공학 교과과정을 개설하였다.<sup>8)</sup>

우리나라에서 환경공학과는 위생공학과로 시작되었다. 1966년에 동아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 위생공학과를 처음으로 설립하였으나, 동국대학교는 1969년에 위생공학과를 폐과하여 동아대학교만 위생공학과를 운영하였다. 그 후 서울시립대학교가 1973년에 위생공학과를 설립하여 환경공학의 내용을 교과과정으로 채택하여 운영하였고, 그 후 1980년에 동아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가 위생공학과를 명칭을 환경공학과로 개명하여 운영하였다.<sup>8)</sup> 특히 1980년에는 보사부의 외청으로 환경청이 발족되면서, 위생공학을 대신하여 환경공학이라는 호칭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Kim (1988)<sup>8)</sup>의 논문에 따르면, 위생공학과가 환경공학으로 호칭이 변경된 것은 사회적으로 위생공학과 영역을 뛰어넘는 영

역을 포함하는 것을 환경공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위생공학이 공중위생을 위한 공학인데 비하여 환경공학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공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위생공학은 수리학(水理學)을 기초로 하던 상하수도공학뿐만 아니라, 화학·미생물학·반응공학 등을 응용하는 용수처리(用水處理)와 하수처리(下水處理) 분야, 그리고 고형폐기물처리와 산업폐수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환경공학은 상하수도계획·용수처리·하수처리·산업폐수처리·수질관리·고형폐기물처리·독성폐기물처리·대기오염방지공학·방사능오염방지공학 등을 위생공학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up>8)</sup>

보건사회부의 외청으로 환경청이 설치되면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1980년대에 환경공학과와 설치되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84년 2월 기준으로 환경공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4년제 대학교가 서울시립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수산대학교, 부산경성대학교, 관동대학교 등 14개가 되었고, 1988년 말에는 26개 대학교에 환경공학과가 설립하게 되었다.<sup>8)</sup>

이렇게 1980년대에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대학교에서 환경공학과를 설치하였고, 동시에 1988년에는 순천향대학교에 환경보건학과가 최초로 설립되었고, 도시공학과 등 기타 환경관련학과들이 설치되었다. 1998년도의 현황을 보면, 환경분야에 속하는 환경관련학과가 87개의 4년제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61개 대학원과정에서 환경관련학과(전공)가 개설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전문대학(2년제 대학) 중에서도 55개 대학에서 환경공업과와 환경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sup>8)</sup> 이렇게 환경분야는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환경관련학과들의 다양성도 매우 크게 증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3. 보건대학원과 환경위생

질병을 다루는 공중보건과 함께 환경위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되었고,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는 보건대학원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설립되었으며, 이것은 록펠러 재단의 국제보건사업단과 관계가 있다.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은 1916년에 최초로 존스홉킨스대학에 보건대학원(John Hopkins 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을 설립하였고, 영국은 1924년에 런던대학교에 보건대학원(Lo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을 설립하였으며, 캐나다는 1927년에는 토론토 보건대학원(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을 설립하였다. 동남아시아에는 필리핀이 지원을 받아 1927년에 필리

핀대학교에 보건대학원(Institute of Hygiene and Public Health)이 설립되었고, 인도 캘커타에도 1933년에 보건대학원(All-India Institute of Hygiene and Public Health)이 설립되었다.<sup>7,9)</sup> 그 후 록펠러 재단은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브라질,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 등 많은 나라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 보건대학원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각 국가에서 환경위생과 보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대학원의 설립은 계속 증가하여, 1971년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의하면 44개국에 121개의 유사 보건대학원이 생겨났고, 1985년에는 이것이 54개국 216대로 늘어났다고 보고하였다.<sup>4,10)</sup>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1959년에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 보건대학원이 설립되었다. 환경위생학 등 8개 전공학과가 있었는데, 수업연한이 1년이었던다가 1962년에 수업연한이 2년이 되었고, 1976년부터 보건학 박사과정이 설치되었다.<sup>1)</sup> 그 뒤 18년이 지난 1977년에 연세대학교에 보건대학원이 설립되었고, 1980년에 경북대학교에 보건대학원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28개 유사 보건대학원에 국내에 설립되어 공중보건, 환경위생 등의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과 질병의 내용을 다루는 보건학 분야에서 환경위생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분야와 환경보건분야는 당연히 보건대학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건분야와 환경분야의 내용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의 활동 및 적용이 보건대학원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50여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건교육사를 정리하면서 보건분야와 환경분야의 학과명칭을 종류별로 분석하여 이들 분야의 다양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하고, 보건대학원의 특성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보건분야와 환경분야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보건과 환경분야의 학과명칭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학과(전공) 분류자료집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자료의 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였다.<sup>11-16)</sup> 수집된 자료에서 전문대, 4년제 대학교, 대학원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환경과 보건으로 분류된 영역에 소속된 학과 명칭들을 구분하여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sup>11-16)</sup>

보건대학원 자료분석은 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에 등록된 28개 회원 보건대학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학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고, 대학교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충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 1. 환경 및 보건 관련학과의 다양성 분석

Table 1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학과(전공) 분류표 자료(2015~2020년)를 사용하여 지난 5년 동안 환경과 보건분야의 관련학과에 대한 갯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에서 환경분야 관련학과의 종류는 매년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 전문대학에는 102개, 4년제 대학교에는 220개, 그리고 대학원에는 175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sup>16)</sup> 또한 보건분야 관련학과의 종류도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 전문대학에는 88개, 4년제 대학교에는 96개, 그리고 대학원에는 160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대학에 개설된 환경분야 관련학과의 종류가 보건분야에 비하여 전문대학은 1.16배 많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4년제 대학교는 2.29배 많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원은 1.09배 많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 2. 환경 및 보건 관련학과 명칭에 나타난 용어의 특징

환경분야의 관심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관련학과의 명칭에 포함된 용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Table 2와 같다. 환경관련학과 명칭에 환경이라는 용어는 전문대, 4년제 대학교, 대학원에서 80.0~93.1%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서 갈수록 다소 낮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학에서 학과명칭에 환경과 함께 사용한 용어는 전문대학에서는 화학(화공) (16.7%), 시스템(16.7%), 공업(공학) (12.7%) 등의 순서였는데, 4년제 대학교에서는 시스템(15.5%), 과학(15.0%), 화학(화공) (10.5%), 지구(10.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원에서는 환경과 함께 사용한 단어(용어)로 공학이 30.9%, 협동과정(20.6%), 시스템이 17.7%, 과학이 13.7%, 지구가 9.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분야 관련학과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하고 있는 분야가 전문대학에서는 화학(화공), 시스템, 공학(공업), 관리 등이라고 추정되고, 4년제 대학교에서는 공학, 시스

템, 과학, 생태, 화학(화공), 지구 등이라고 생각되며, 대학원에서는 공학, 협동과정, 시스템, 과학 등을 중요한 분야로 고려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보건분야의 관심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관련학과의 명칭에 포함된 용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Table 2와 같다. 보건관련학과 명칭에 보건이라는 용어는 전문대, 4년제 대학교, 대학원에서 47.7~61.5%로 약 절반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다. 4년제 대학교에서 61.5%로 다소 높았지만, 전문대학에서는 47.7%에서 보건이라는 용어를 학과명칭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전문대학 학과명칭에서 보건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용어는 안전(21.6%), 산업(15.9%), 관리(14.8%), 의료(12.5%)이었고, 위생(10.2%)과 환경(10.2%)는 다소 적은 수준으로 명칭에 사용하고 있었다. 4년제 대학교 학과명칭에서는 보건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용어가 의료(17.7%)와 관리(16.7%) 등이었고, 환경(13.5%)과 건강(12.5%) 등이 그 다음 순서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대학원 학과명칭에서는 보건 다음으로 관리(15.0%)와 협동과정(12.5%)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산업(11.9%), 임상(11.3%), 환경(10.6%), 의료(9.4%), 건강(8.8%)가 그 다음 순서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건분야 관련학과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하는 분야가 전문대학에서는 안전과 산업 등으로 추정되고, 4년제 대학교는 의료와 관리 등으로 추정되며, 대학원에서는 관리와 협동과정 등을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관련학과 명칭에 환경과 보건을 함께 사용한 경우를 분석해 보면, 환경분야 관련학과 명칭에서는 보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전문대학에서 6번째로 높았지만, 4년제 대학교에서 16번째로 나타났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5회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분야 관련학과 명칭에서는 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4년제 대학교에서 4번째로 높았고, 대학원에서도 6번째로 높았으며, 전문대학에서도 8번째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보건대학원의 특성변화

우리나라의 보건대학원은 Table 3과 같이 28개교이다. 이는 특수대학원 설립 허가 조건의 완화로 인해 2000년대에 급속

Table 1. 환경 및 보건분야 학과명칭의 연도별 종류변화(단위: 갯수)

연도	환경분야			보건분야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
2020	102	220	175	88	96	160
2019	100	220	169	86	94	149
2018	99	220	166	85	92	146
2017	99	215	164	85	91	138
2016	93	208	164	83	87	132
2015	93	199	159	83	81	118

Table 2. 환경 및 보건분야 학과명칭에 사용된 단어(용어)의 특징

		보건분야																						
		환경분야				대학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						
		4년제 대학교 (학과종류: 220개)				대학원 (학과종류: 175개)				전문대학 (학과종류: 102개)				4년제 대학교 (학과종류: 220개)				대학원 (학과종류: 175개)						
순 위	단어(용어)	사용횟수 횟수	%	순 위	단어(용어)	사용횟수 횟수	%	순 위	단어(용어)	사용횟수 횟수	%	순 위	단어(용어)	사용횟수 횟수	%	순 위	단어(용어)	사용횟수 횟수	%	순 위	단어(용어)	사용횟수 횟수	%	
①	환경	95	93.1	①	환경	200	90.9	①	환경	140	80.0	①	보건	42	47.7	①	보건	59	61.5	①	보건	86	53.8	
②	화공(화학)	17	16.7	②	공학	71	32.3	②	안전	54	30.9	②	안전	19	21.6	②	의료	17	17.7	②	관리	24	15.0	
③	시스템	17	16.7	③	시스템	34	15.5	③	협동과정	36	20.6	③	산업	14	15.9	③	관리	16	16.7	③	협동	20	12.5	
④	공학(공업)	13	12.7	④	과학	33	15.0	④	시스템	31	17.7	④	관리	13	14.8	④	환경	13	13.5	④	산업	19	11.9	
⑤	관리	11	10.8	⑤	생태	28	12.7	⑤	과학	24	13.7	⑤	의료	11	12.5	⑤	건강	12	12.5	⑤	임상	18	11.3	
⑥	보건	10	9.8	⑥	화학(화공)	23	10.5	⑥	지구	17	9.7	⑥	소방	10	11.4	⑥	산업	9	9.4	⑥	환경	17	10.6	
⑦	생명	8	7.8	⑦	지구	22	10.0	⑦	화학(화공)	14	8.0	⑦	위생	9	10.2	⑦	과학	8	8.3	⑦	의료	15	9.4	
⑧	청정	7	6.9	⑧	조경	17	7.7	⑧	기후	14	8.0	⑧	환경	9	10.2	⑧	임상	6	6.3	⑧	건강	14	8.8	
⑨	정보	6	5.9	⑨	정보	10	4.5	⑨	생태	13	7.4	⑨	응급구조	5	5.7	⑨	웰빙	5	5.2	⑨	과학	14	8.8	
⑩	과학	6	5.9	⑩	산업	8	3.6	⑩	해양	13	7.4	⑩	의약품	5	5.7	⑩	한방	5	5.2	⑩	방사선	12	7.5	
⑪	위생	4	3.9	⑪	바이오	7	3.2	⑪	조경	11	6.3	⑪	방사선	4	4.5	⑪	위생	5	5.2	⑪	역학	10	6.3	
⑫	바이오	4	3.9	⑫	생명	7	3.2	⑫	융합	11	6.3										⑫	안전	9	5.6
⑬	기술	4	3.9	⑬	관광	7	3.2	⑬	산업	6	3.4										⑬	간호	9	5.6
				⑭	생활	6	2.7	⑭	에너지	6	3.4										⑭	정책	9	5.6
				⑮	해양	6	2.7	⑮	신림	5	2.9										⑮	정보	7	4.4
				⑯	보건	6	2.7	⑯		6	2.7										⑯	국제	7	4.4

히 증원된 면도 있지만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도 있고, 사회전반의 학력 인플레이션과 대학의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sup>17)</sup> 설립초기에 보건대학원으로 시작한 대학원이 21개교(75.0%)이었는데, 현재 보건대학원을 유지하는 곳은 16개교(57.1%)로 감소하였다. Moon (2000)<sup>9)</sup>이 주장한 인구 1천만명당 1개교의 공중보건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 볼 때 전국에 5개교면 충분하다고 하였지만, 인구 수백만 명당 1개교의 공중보건대학원의 설립을 주장한 Banerji의 견해에서 수백만 명을 300만 명으로 계산하면 전국에 약 16개교면 된다고 보고하였다.<sup>18)</sup> 우리나라 보건대학원이 공중보건대학원임을 표명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보건대학교의 설립 갯수가 합리적인 숫자로 수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대학원을 처음부터 보건복지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경우가 1개교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중간에 일반대학원으로 변경하였지만(삼육대학교), 오히려 중간에 명칭을 변경시켜 현재 보건복지대학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5개교가 되어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서 거시적인 부분을 공중보건학과의 하부구조에 포함시켜 연계할 수 있다는 학문적 특성이 있다는 점과 이 학문영역의 설립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병렬적 구조의 대학원 명칭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복지 이외에 환경보건, 보건산업, 보건경영, 보건과학, 건강과학, 보완의학, 보건의료, 도시보건 등의 명칭을 보건대학원의 이름에 병렬로 사용하면서, 보건분야의 다양성을 확장시켜 나아갈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보건인력을 양성하고 있음을 대내외

Table 3. 우리나라 유사 보건대학원의 명칭변경

	대학교	시작	최초(시작)	변경	현재
1	서울대학교	1959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2	연세대학교	1977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3	영남대학교	1980	환경대학원	2003	환경보건대학원
4	경북대학교	1981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5	인제대학교	1988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6	충남대학교	1988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7	대구한의대학교	1988	보건대학원	2015	보건복지대학원
8	가톨릭대학교	1991	산업보건대학원	2004	보건대학원
9	고신대학교	1994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10	조선대학교	1994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11	전북대학교	1995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12	원광대학교	1997	보건환경대학원	2013	보건보완의학대학원
13	가천대학교	2000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14	고려대학교	2000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15	차의과학대학교	2001	보건대학원	2003 2015	보건복지대학원 보건산업대학원
16	대전대학교	2001	보건스포츠대학원	2013	보건의료대학원
17	삼육대학교	2001	보건복지대학원	2016	일반대학원
18	한림대학교	2002	보건대학원	2010	보건과학대학원
19	건양대학교	2003	보건대학원	2006	보건복지대학원
20	남부대학교	2003	보건대학원	2008 2017	보건복지대학원 보건경영대학원, 문화복지대학원
21	을지대학교	2003	보건대학원	2021	보건복지대학원
22	아주대학교	2004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23	순천향대학교	2005	건강과학대학원	-	건강과학대학원
24	경상대학교	2010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25	창원대학교	2011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26	한양대학교	2015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27	서울시립대학교	2018	도시보건대학원	-	도시보건대학원
28	인하대학교	2020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에 표명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Supplementary Table S1).

우리나라 보건대학원은 아래에 학과를 두고, 그 학과 또는 학과들 내에 여러 전공들로 구성되도록 한 곳이 있는가 하면, 대학원 내에 전공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대학교와 가천대학교의 보건대학원은 학과(department) → 분야(division) → 전공(major)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2개의 학과(보건학과와 환경보건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보건학과에서는 보건학 분야와 보건정책관리학 분야로 구분하여 보건학 분야에는 5개 전공, 보건정책분야에 8개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보건학과에는 7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에서는 한 개의 보건학과에 공중보건학 분야와 전문보건학 분야를 운영하고 있고, 공중보건학 분야에 2개의 전공과 전문보건학 분야에 7개의 전공을 운영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순천향대학교 보건대학원은 먼저 심리치료, 인문사회, 자연공학 등 3개 분야(division)로 나눈 후에 심리치료분야에 4개 학과, 인문사회분야에 2개 학과, 자연공학분야에 5개 학과를 운영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대학원에 학과만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조선대학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고려대학교, 남부대학교, 을지대학교 등이고, 학과없이 전공만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이다. 반면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7개 학과를 운영하면서, 그 중 하나는 2개의 학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과에 1~2개의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학과와 전공들을 통하여 취득하는 학위는 보건학 석사(MPH)와 전문보건 석사로 구분되고 있다.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MPH)만을 수여하는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고신대학교, 전북대학교,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14개 학교이고, 보건학 석사와 전문보건 석사를 선택하여 수여하는 경우는 영남대학교, 인제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조선대학교, 원광대학교, 가천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대전대학교, 삼육대학교, 한림대학교, 건양대학교, 남부대학교, 을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등 14개 학교이어서, 그 비율이 50:50을 이루고 있다.

보건학 석사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공중보건학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과와 전공자에게 수여되고 있고, 전문보건 석사는 다양한 의료기술분야와 기타 보건관련전공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2000년대에 많은 보건대학원이 설립되면서 전통적인 보건학을 운영하면서 유사보건영역을 부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Kim (2013)<sup>17)</sup>은 대학원의 역사가 짧거나 명칭변경이 잦은 경우에 유사 보건영역의 부가경향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보건학 구성에 가까운 병원경영 관련영역이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계속해서 보건계열이라고 알려진 의료기

술관련분야의 전공들이 부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치료관련분야와 미용 관련분야가 포함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문학, 경찰학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전문보건 석사는 학교에서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데, 여기에는 치료와 관련된 미술치료학 석사, 물리치료학 석사, 언어병리학 석사, 대체의학 석사, 병원경영학 석사, 치위생학 석사, 응급구조학 석사, 음악치료 석사, 미용의학 석사, 동물매개심리치료학 석사, 방사선학 석사, 의공학 석사, 치유선교학 석사, 건강미용학 석사 등이 있고, 이학과 공학분야에 대한 이학석사, 안경과학 석사, 임상검안학 석사, 미용화학제품과학 석사, 임상영양학 석사, 공학 석사 등이 있으며, 사회문화계통에 해당되는 문학석사, 경영학 석사, 경찰학 석사, 상담학 석사, 풍수지리학 석사, 체육학 석사, 사회복지학 석사 등이 있다.

다양한 전문보건학위가 보건대학원의 보건분야 활동영역을 전문영역으로 확대하여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일 전공에 석사를 붙인 명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건대학원의 정체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구심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의 공중보건증진에 대하여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향후 보건대학원이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 IV. 결 론

인류는 질병발생이 환경위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환경은 보건분야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산업혁명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위생운동은 매우 활발하게 전세계로 전개되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에 서울대학교에 보건대학원을 설립하면서 대학원과정으로 환경위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였고, 유럽과 미국에서 19세기에 있었던 위생개혁운동의 영향을 받아 1960년대에 학부과정에 환경분야가 위생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명칭을 변경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환경분야는 학과명칭의 종류가 2020년 현재 전문대학에 102개, 4년제 대학교에는 220개, 대학원에는 175개로 개설되어 있고, 보건분야는 학과명칭의 종류가 전문대학에 89개, 4년제 대학교에는 96개, 대학원에 160개로 개설되어 있다. 또한 환경분야의 학과명칭에 환경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80~93.1% 있지만, 보건분야 학과명칭에 보건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47.7~61.5% 이다. 보건대학원은 2020년 현재 28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를 수여하는 학교와 전문보건 석사를 혼용하여 선택하게 하는 학교의 비율은 50:50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환경분야와 보건분야는 전문대를 포함한 학부과정과 대학원에서 이미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여 21세기에 적합한 다양한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보건대학원에서는 의료 및 기타 전문보건영역의 진입이 이미 크게 확대되어 있어서, 전통보건분야와 전문보건분야의 공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Supplementary Materials

Supplementary materials can be found via <https://doi.org/10.5668/JEHS.2022.48.1.28>.

## References

1. 권이혁. 공중보건의 역사. In: 권이혁. editors. 최신보건학. Seoul: Shinwhang Press; 1982. p.22-33.
2. Winslow CEA. The Evolution and Significance of the Modern Public Health Campaig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23. p.12-27.
3. Lee JC. Professionalizing Public Health as a Branch of Medicine: The Emergence of the Johns Hopkins School of Public Health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10s. *Korean J Med Hist.* 1996;5(2): 111-128.
4. Institute of Medicine (US) Committee for the Study of the Future of Public. The Future of Public Healt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1988. p.56-72.
5. Visellear AJ. The emergence of pioneering public health educa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Yale J Biol Med.* 1988; 61(6): 519-548.
6. Sedgwick WT. The readjustment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hygiene and sanitation. *Public Health Pap Rep.* 1905; 31(Pt 1): 115-120.
7. Fee E. Disease and Discovery: a History of the Johns Hopkins 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 1916-1939.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7.
8. Kim DM. A short history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in Korea. *J Korean Soc Environ Eng.* 1988; 10(3): 1-5.
9. Moon OR. Major issues in health professional production and utilization by the school of public health. *J Inst Health Environ Sci.* 2000; 10(1): 29-39.
10. Meng KH. Educational and learning objectives of schools of public health. *Korean J Med Educ.* 2000; 12(2): 163-171.
11. 임후남, 김본영, 박재민, 고성원, 김경남, 김상호, et al. 2015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통계자료 SM 2015-08).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5.
12. 박성호, 김본영, 박재민, 고성원, 권학예, 김경남, et al. 2016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통계자료 SM 2016-06).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6.
13. 박성호, 오지연, 이정환, 최나연, 손지혜, 설가인, et al. 2017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통계자료 SM 2017-10).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7.
14. 이기준, 오지연, 이정환, 손지혜, 김은미, 설가인, et al. 2018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통계자료 SM 2018-05).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8.
15. 박근영, 오지연, 장윤정, 이정환, 김은미, 설가인, et al. 201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통계자료 SM 2019-09).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9.
16. 박근영, 오지연, 이정환, 김은미, 설가인, 이상민, et al. 2020 학과(전공) 분류자료집(통계자료 SM 2020-08).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0.
17. Kim J. Public Health Education at a Crossroad. *Korean J Heal Educ Promot.* 2013;30(5):27-46.
18. Kim MI. Mission and Education in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n J Public Heal.* 1996 Jun;33(1):113-120.

### 〈저자정보〉

이진현(교수), 문경환(교수), 안령미(교수)